

캐묻고 따지고

멋지게 협조하여
각자의 「내 협회」가



상임위원의 입장에서

가톨릭의대간호학과교수 이 인 자

교육위원의 입장에 앞서 간호협회의 일개 개인의 자격으로 이 몫을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간호협회라 하면 관계 있는 이는 누구나 단체의 소속감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협회가 「내 집이다」「내 일이다」「내가 주인이다」라고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하겠지」「누가 살겠지」되고, 무심하게 지나쳐 버티기 일췌이다. 어느때 나와 직결된 권리도 행사 못하게 달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극적인 생활 태도를 지니고 살아왔다. 무조건 잘 참았고 잘 견디어 왔다. 그것만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열쇠인양, 그러나 이제는 우리 협회도 각자의 「내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던 협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캐묻고 따지고 멋지게 협조하는 적극적인 회원이 된다면 자라나는 이들에게 간호원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적은 문제라도 그것이 전 회원을 위한 일이며 그 목적이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만 뚜렷하다면 그 위에 전개되는 과정은 분명히 「교육적」일 테고 우리 모두 교육위원이 될 것이다.

뜻날 양지 바른 출발에 내 팔애와 함께 앉아서 될 때 「엄마, 나 이담에 얼마처럼 간호원 될래」 한다면 난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을까 상상해 본다.

〈p. 25에서 계속〉

가장 귀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고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경력을 가진 자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지우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래로 만족할 것은 아니라 본다. 우리의 자질을 높여 남녀노소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군이 되는데도 권익을 보장받을 것이다. 국민학교 양호교사 가운데 간호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보다 무자격자가 더 많은 지역도 있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문제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 품은 비단 학교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음은 매우 염려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런 문제 등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파헤쳐야 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키워주어 사회 각분야에서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타인의 지시에 따르기 전에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들은 자기가 처한 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에 응하여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힘쓸 것이며 지부에서의 활동을 임원이나 이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협회의 운적일에 관심을 두어 회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여 지부의 투쟁을 살려야 할 것이다.